

가을철은 구충제 복용과 새로운 기생충 감염에 주의 할 때



강 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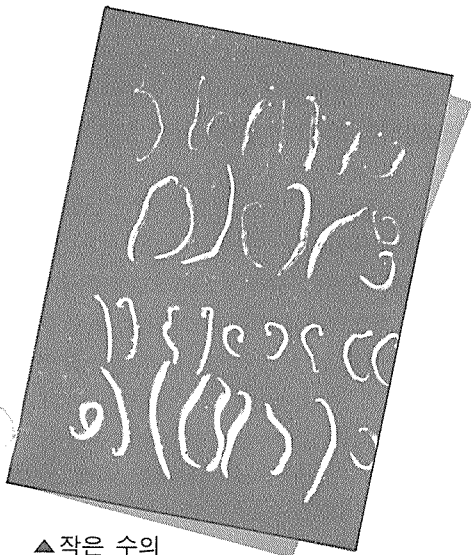
어느 한 나라의 건강지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기생충감염율을 예로 들 수 있다. 여러 기생충중에서도 회

충을 예로들면 우리나라에서 1970대 50%의 높은 감염율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그 감염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기생충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문제점을 갖는다. 이 문제점은 첫째 이환자로 부터 배출된 충란이 계속 외부환경(특히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

에 그 결과 주위사람 또는 외부사람에게도 감염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두번째로 소수의 기생충감염자라 할지라도 이들 환자 개개인이 배출하는 충란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충 1마리를 갖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이충제 1마리가 하루에 충란을 배출하는 수가 10만~20만개 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외부환경을 오염시켜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기생충중에서 특히 가을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생충들을 예로들면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및 동양모양선충등이 있다. 이들 기생충들은 인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작은 수의
충제라도 급성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감염형충란이나 애벌레들이 흙에 오염되어 있다가 배추, 무우, 파등의 채소류에 부착될 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가을철에는 이들 채소류들을 소비할 기회가 많아지게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여름철에 부적절하게 처리된 채소류(감염형충란 또는 애벌레가 부착된것)를 섭취하였을 경우 이미 인체내에서 성충으로 발육되어 있어 또 다시 가을철에 기생충감염이 일어날 때에는 재감염 또는 누적감염의 경우로 진전하게 된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구충제 복용은 물론 새로운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생충병관리가 다른때 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혹 주위에서 기생충 몇마리를 갖고 있다고해서 그것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작은수의 충제가

간혹가다가 급성질환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회충감염을 예로 들면 원래 이 충제의 기생하는 부위는 주로 작은 창자로 되어 있지만 작은 창자에 관련된 질환으로 그 기능이 약해지면 이때 회충은 작은 창자벽을 뚫고 나와 간에 침입하거나, 심지어는 뇌에까지도 들어가 아주 위험한 증상을 초래된 증례도 보고 되었다. 특히 발육기에 있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학생의 경우 회충에 감염되면 영양 및 성장발육에 막대한 장애가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에는 구충 효과가 우수하고 저렴한 구충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기생충을 갖고 있다면 거의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흔히 구충제를 복용하였는데도 대변내에서 기생충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되는데 회충과 같이 길이가 20-30cm인 큰 충제는 대변과 함께 배출되면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십이지장충이나 편충과 같이 작은 충체는 대변과 함께 섞여 있을 때 이들 충체가 배출되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 대변검사와 함께 구충제 복용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이다.

가을철과 봄철에 기생충병의 관리는 먼저 정기적으로 대변검사를 전문기관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감염형 충란 또는 애벌레를 섭취한 다음 성충으로 발육하는 시기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변검사를 하였을 때 충란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가끔 기생충을 갖고 있을 경우도 생각 할 수 있다.

즉 감염형충란이나 에벌레를 섭취하여 체내에서 성충으로 완전히 발육하지 않고 이행단계에 있을 때 또는 기생충에서도 숫놈만 감염되어 있을 때에는大便검사를 하더라도 충란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항상 기생충관리에 대하여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가을철에 관련된 기생충중 요충의 관리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 요충관리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요충은 회충 또는 십이지장충과 달리 그 전파하는 방식이 주로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성 기생충병이라고도 불리운다. 요충의 충란은 주로 항문 주위에 붙어 있으나 때로는 떨어져서 내의, 이불 등에 쉽게 오염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레, 공기중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다.

요충감염은 어른보다 오히려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되는데 특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일 경우 심한 항문주위 가려움증 때문에 신경질을 낸다던가 또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하여 따라서 학업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더욱이 요충감염은 생활 정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비교적 높은 감염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감염력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가족중 한사람이 감염되면 전가족이 감염되었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만큼

가족단위로 발생한다.

따라서 전가족이 동시에 구충제를 복용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가을철에는 어느때보다 기생충관리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 각가정에서는 채소류를 다루는 때가 많아짐으로 무엇보다도 채소관리를 어느때 보다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보통 흐르는 물에 3~4 번씩 채소류를 씻어 낸다면 이것에 붙어있는 충란이나 에벌레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기생충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정도의 기생충감염율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기생충 전문기관의 관리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소수의 감염자가 계속 기생충 충란을 배출할때 그충란은 언제든지 건강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생충관리는 개인의 건강관리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조교수
·의박)

●이달의 건강표어●

정신건강, 신체건강, 나라건강, 국가건강

- 한국건강관리협회 -